



이달의 독립운동가

장매성·박옥련·박현숙·장경례 선생

소녀회, 여성독립운동의 새 길을 열다



장매성



박옥련



박현숙



장경례

1928년 11월 광주여고에 다니던 장매성 선생이 주도해 박옥련, 고순례, 장경례 등과 함께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여성해방, 민족해방 등을 지향하며 함께 서적을 읽고 토론을 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역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간 충돌이 도화선이 돼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되자 소녀회원들은 시위운동에 참여해 부상 학생을 돌보는 한편 물주전자를 들

고 다니며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도왔다.

이후 장매성 선생 주도로 투쟁본부를 마련해 시위를 준비하며 등사판으로 수천 장의 격문을 인쇄해 11월 12일 시위현장에 배포했다.

이듬해 1월 15일 서울에서 여학생 연합시위가 발발하고 동시에 광주에서 여학생 12명이 검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이로써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학생독립운동은 전국의 300여 개 이상의 학교와 5만4,000여 명의 학생들이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에 참여했으며,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1990년 장매성·박옥련·박현숙·장경례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달의 6·25 전쟁 영웅

서기종 육군 일병 (미상)

용문산전투 고지 재탈환, “물리서면 죽는다”



1951년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를 경계부대로 북한강과 홍천강 남쪽에, 제19연대를 주 방어 지역인 용문산 서쪽에, 제7연대를 동쪽에 배치해 결사항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췄다.

5월 17일 중공군은 3개 사단을 투입해 군 제6사단에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 19일경 3대대 10중대 진지 전방 10~20m 거리까지 접근하며 맹공을 해왔다.

당시 제6사단 제2연대 3대대 10중대의 정훈병이었던 서기종 일병은 적의 돌격에 중대장이 일시 후퇴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뛰어나가 소총 사격과 함께 빼앗긴 진지로 달려가며 “중대장님은 건재하다. 물리서면 전부 죽는다. 지원부대가 곧 온다”며 크게 외쳤다. 서기종 일병의 외침에 중대원들은 용기를 얻어, 일제히 참호를 뛰쳐나가 백병전을 펼친 끝에 고지를 재탈환했다.

미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51년 미국은 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기념식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한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89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현지와 국내에서 개최됐다. 중국 현지 기념식은 루쉰공원 매한기념관 광장에서 열렸고, 국내 기념식은 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매한기념관에서 열렸으며 각계인사, 기념사업회 회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사진>

한편, 윤봉길 의사의 출신지인 충남 예산 충의사에서는 예산군 주관으로 추모다례가 개최됐다.

윤 의사는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이 열린 홍콩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수통형 폭탄을 투척했고, 이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제

승려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생을 항일투쟁에 헌신한 운암 김성숙 선생 제52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 부요인 묘역에서 열렸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제는 김성숙 선생의 유족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능화 스님의 불교 추모 의식과 팝페라 그룹 ‘듀오아임’의 추모곡 헌정이 이어졌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심재혁 님(1930.5.12.)



○ 군 복무 내용

- 1951.3.11. 육군 입대 (군번 0195870), 1951.4.15. 의병 전역(이병)
- 동생 이름인 심재수로 8사단 입대 후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등 부위 다발성 총상으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돼 총알 10개 제거 후 치료 중 의병전역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 채용문 님(1927.03.24.)



○ 군 복무 내용

- 1950.8.10. 육군 입대 (군번 8800661), 1951.8.12. 의병전역(상병)
- 1950.12.14. 연천에서 교전 중 실종, 1950.12.26. 귀대 후 1951.1.25. 1육군병원 입원 후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동상에 걸려 군병원에서 양쪽 발가락 절단을 권유받 고 의병전역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

■ 고 박복룡 님(1929.12.29.)



○ 군 복무 내용

- 1949.7.4. 육군 입대 (군번 1505932), 1954.1.31. 명예전역(상병)
- 1950.8.2. 실종, 1953.4.23. 상병포로교환협정에 의해 귀환 후 명예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적의 총탄으로 우측 복부, 좌측 족부 총상